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2월
석사학위논문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와
또래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은 영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와
또래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Academic Enthusiasm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eer Relationship

2022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은 영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와
또래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희서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은 영

김은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용 섭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 성 배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희 서 (인)

2021년 12월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제2장 이론적 배경	8
제1절 부모의 양육태도	8
1. 부모의 양육태도 개념	8
2.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9
제2절 학업열의	16
1. 학업열의 개념	16
2. 학업열의 구성요소	17
제3절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18
1. 삶의 만족도 개념	18
2. 청소년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20
제4절 또래관계	22
1. 또래관계 개념	22
2. 또래관계 영향요인	23

제5절 선행연구	25
1.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열의와의 관계	25
2.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26
3. 또래관계의 조절효과	27
4. 선행연구 평가	29
제3장 연구설계	31
제1절 연구모형	31
제2절 연구가설	32
제3절 주요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33
1. 변수의 조작화 정의	33
2. 설문구성 및 측정	35
제4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8
1. 자료의 수집	38
2. 표본의 특성	38
3. 자료 분석 방법	41
제4장 실증분석	42
제1절 측정도구 검증	42
1. 타당도 분석	42
2. 신뢰도 분석	47

제2절 기술통계 분석	48
1. 변수의 기술적 통계	48
2. 변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분석	49
3. 상관관계 분석	51
제3절 가설의 검증	53
1.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53
2.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	54
3. 또래관계의 조절효과 분석	63
제4절 분석결과 논의	68
제5장 결 론	7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70
1.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70
2.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분석 결과	71
3.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71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72
1. 이론적 시사점	72
2. 실천적 시사점	73
3. 정책적 시사점	74
제3절 향후 연구방향	75

[참고문헌] 77

[부록] 설문지 89

표 목 차

<표 2-1> 연구학자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의 유형	13
<표 3-1> 설문지 구성	36
<표 3-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0
<표 4-1>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분석 결과	43
<표 4-2> 학업열의 요인분석 결과	44
<표 4-3> 삶의 만족도 요인분석 결과	45
<표 4-4> 또래관계 요인분석 결과	46
<표 4-5> 신뢰도 분석 결과	47
<표 4-6>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49
<표 4-7> 주요변수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50
<표 4-8>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52
<표 4-9> 학업열의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영향 분석	54
<표 4-10>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영향 분석	55
<표 4-11> 청소년 학업열의에 대한 삶의 만족도의 영향 분석	56
<표 4-12> 긍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58
<표 4-13>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61
<표 4-14> 긍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또래관계 조절효과	64
<표 4-15>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또래관계 조절효과	65
<표 4-16>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67

그림 목 차

[그림 3-1] 연구모형	31
[그림 4-1] 긍정적 양육태도의 학업열의에 대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	59
[그림 4-2] 부정적 양육태도의 학업열의에 대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	62
[그림 4-3]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또래관계 조절효과	66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Academic Enthusiasm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eer Relationship

Kim, Eun Young

Advisor: Prof. Park, Hwie seo, Ph.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olicy,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on adolescents' academic enthusiasm, the mediating effects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eer relationships. For this purpose, theoretical background was consider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research design was conducted after explor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academic enthusiasm of adolescents.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panel data for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in 2018 was used.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6 version program. The analysis methods were factor analysis, reliability verification,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 effect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on adolescents'

academic enthusias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ositive rearing attitude, but negative rearing attitud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Second, life satisfaction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adolescents' academic enthusiasm.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academic engagemen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eer relationship, but the moderating effect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 and academic engagement.

This study is limited to generalization of the whole middle school students group by limiting the first graders of middle school in 2018 by using the first data of KCYPS 2018, and it has limited the variables affecting the academic enthusiasm of the adolescents to a few, so there is a lack of comprehensive research on the academic enthusiasm of the adolescents. However, this study verified the relationship model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 academic enthusiasm, life satisfaction, and peer relationship, and person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It is meaningful in that it help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influence on academic enthusiasm and to prepare a plan to increase academic enthusiasm because it reveals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enthusiasm of adolescents.

Keywords : Parenting Attitudes, academic enthusiasm , Life Satisfaction, Peer Relationship, KCYPS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신이 목표로 삼는 성적에 도달하기 위해 심적 불안과 압박감을 이겨내면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2016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총괄보고서’에 따르면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청소년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성적 때문에 죽고 싶다고 생각한 청소년의 비율이 40%가 넘어 매년 증가폭을 나타낸다. 이러한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청소년 집단은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성취에 대한 심적 중압감으로 인해 삶에 의욕까지 상실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통계청의 ‘청소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9세~24세 청소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46.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것은 학업에 대한 성취와 열의를 하락시켜 점점 학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학업 의지가 감소하게 되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고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갖게 되어 학업소진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내적 에너지원인 학업열의가 필요하다.

학업열의는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미를 내적으로 이끌어내는 동시에 학업에 대해 집중하게 해주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정신적 회복력을 의미한다(Schaufeli et al., 2002a). 다시 말해, 학업열의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집중해서 학습에 몰두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한다. 최근 들어 긍정심리학의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학업소진과 학업열의 개념에 대해 하나의 축에서 두 개념이 양 극단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논란이 되면서 이 개념들을 상대적

이면서도 독립적인 개념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Gonzalez- Roma et al., 2006). 최근 연구자들은(송윤희, 2015; 이기경 외, 2017; 권은경, 2020; 박예은 외 2021) 학업성취나 학업소진, 학교생활 만족도 보다 긍정적 개념인 학업열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부정적 개념인 소진과 더불어 열의라는 긍정적 개념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었다(윤아람·정남운, 2011).

이와 같이 청소년 스스로가 학업에 흥미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업열의는 학교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학습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청소년들의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들 수 있다. 청소년의 성장기에 있어서 가정 안에서 부모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은 청소년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열의와 관련해 부모와의 관계는 큰 외적 요인이며, 부모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인적자원이다(박병기·박선미, 2012).

대부분 선행 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업열의를 증진시키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열의를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고(최영미, 2020; 김민선, 2021), 부모의 학업적 지지가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hen, 2005). 그리고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학업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조수현 외, 2018).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과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간관계, 건전한 취미문화의 부재 등으로 삶의 만족감이 떨어지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미·전성희·유미숙, 2012).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삶의 만족도 저하를 일으키고 있다(김남정·임영식, 2012).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학업과 연관성이 있으며 학업열의에도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권은경(2020)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학업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고, 염혜선과 이은주(2020)는 삶의 만족도와 학업열의가

정적인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즉,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 학업열의도 높아져 학업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학업열의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하고 대부분이 학업성취와 학교생활과 연관된 연구자료(최유선, 2014; 김명자, 2017; 홍혜정, 2019)인데 이 연구자료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 시기에는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부모보다는 또래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적 지지원으로 또래관계는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또래들과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자주 보내려 하므로 또래의 영향력이 부모 영향력 보다 더 커진다.

청소년기의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는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며(Berndt, Hawkins & Jiao, 1999),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 경험을 낮추는 등(Armsden et al, 1987; Neils & Rae, 2009) 심리 사회적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Chen(2005)은 또래의 학업지지를 통해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조수현 외(2018) 연구 보고에서는 또래들의 지지가 학업장면에서 학업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도재석(2017)은 학업열의에 대한 또래의 관계성지지 관련 연구에서 환경적 변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경적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 또래관계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의 관계는 단순한 변수 간의 관계성을 넘어 개인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고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간접요인들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에 한정되어 있어 그 효과 수준을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의 단순한 관계성을 넘어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들 간의 영향 관계를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모형이 반영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영향관계에 관하여 살펴보고, 개인적인 변인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매개 역할을 하는지와 환경적 변인인 또래관계가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내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함으로써 학업열의를 높일수 있는 구체적인 시사점 제시를 연구목적으로 삼겠다.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변수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조절변수로는 또래관계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므로 시사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과 내용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인생주기 중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급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전기 청소년기에 큰 관심을 갖고 중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의 과도기적인 단계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 시기라서 사춘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중학생 경우 아동기를 벗어나 성인을 가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자아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 갈등 등을 겪게 되는 시기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학업에 대한 심적 부담감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변화된 학교생활에 적응함에 있어서 변화가 가장 많은 중학교 1학년을 패널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살펴보았고,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부모, 학교, 또래인데 그 중에 부모의 영향은 청소년기에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칠 변인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하위변인으로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분류하여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검증하였다.

셋째, 매개변수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선정하여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삶의 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탐색하였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개인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인 삶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넷째, 조절변수로는 또래관계를 선정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에 영향 관계에서 환경적인 요인인 또래관계가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업열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범위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고,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서 연구목적,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에 관한 서술로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 또래관계 등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였다.

제3장은 연구의 설계로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연구모형을 정립하였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주요 변수의 조작적인 정의와 연구 측정을 위한 설문문의 구성 및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연구가설의 검증 과정을 통해 나타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실천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언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고 연구설계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8년 제1차년도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중학교 1학년 2,590명

대상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또래관계 등의 요인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 국내 문헌, 외국 문헌, 관련 연구 보고서, 정기간행물, 학술 논문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활용하였다.

둘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모형을 정립하는데 연구주제와 관련된 변인들을 검토하여 연구모형과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하위변수로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분류하였고, 매개변수는 삶의 만족도로 설정하였으며, 조절변수는 또래관계를 설정하여 변인들간의 영향관계 속에서 직·간접적인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내용은 부모의 양육태도 14문항, 학업열의 14문항, 삶의 만족도 5문항, 또래관계 8문항 등 총 4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넷째, 가설 검증을 위하여 SPSS Statistic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부모의 양육태도

1. 부모의 양육태도 개념

가정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차적으로 정서적·사회적 발달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초적 집단이다. 가정 구성원을 이루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성장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Becker(1964)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여지는 보편적인 태도와 행동이 자녀의 성격, 행동, 자녀의 정서·인지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Fishbein 외(1975)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하나의 문화방식으로 보았고, 부모가 자녀의 정서·신체·인지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태도라고 하였다.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국내 학자들을 살펴보면 남상인(1983)은 양육태도를 부모 및 양육자가 자녀의 생활적 훈련, 훈육 등 자녀 양육 중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행동을 말하고 있다. 허묘연(2000)은 일반적으로 양육행동이란 부모 및 대리자가 아동을 양육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최진(2016)은 부모 양육방식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치되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가치관, 행동 등으로 정의하였고, 자녀들의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욕구의 대부분을 부모가 책임지고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인격형성과 사회적응 여부, 학습의 동기와 태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택용, 2016).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구조적인 것은 유아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성장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신체적·정서적 구조의 기본이 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자녀의 현재와 미래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부모가 보여준 태도는 자녀의 지각척도가 되어 자녀의 지적·정의적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Hauser, 1973).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가치관이나 속한 문화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부모의 성격에 기반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등 여러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녀의 발달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배숙진, 1998). 특히,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 보다 자녀의 적응·학교에서의 성취 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Schaefer, 1965).

이와 같이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부모 및 주양육자가 자녀 양육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태도와 양식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의 개념으로 자녀의 지적이고 사회적인 성장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1) 학자들의 견해

양육태도에 대한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부모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이론화하고 체계화 한 학자 Symonds(1949)는 양육태도 유형을 수용-거부, 지배-복종이라는 두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지배형인 부모는 자녀에게 높은 기준을 만들어 부모가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하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길러진 자녀는 수동 의존적이 된다. 지배형 부모 아래 자란 아이는 예의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불안해하고 반항적인 행동을 하게되고 자립적이거나 창의력이 결여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거부적인 부모의 양육은 자녀가 필요로 하는 요구나 애정이 무관심과 거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녀가 적대감을 나타내거나 애정결핍으로 인한 애정 요구 행동이나 주의가 산만한 행동 또는 반항, 공격을 하고 거짓말과 도둑질

등 문제행동이나 이상행동을 보일 수 있고, 거부형 부모는 자녀의 욕구를 세심하게 살피고 심리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신경증적 경향과 같은 문제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문경주 외, 1995).

Symonds(1949)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과보호로 양육하게 되면 자녀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의존도가 높고 사회성이 떨어져 교우관계를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어려워 해 결국 고립적인 성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Schaefer(1959)는 차원성을 제시한 학자로 두 개의 양극적인 차원의 관점에서 양육태도를 애정-거부 대 자율-통제로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자율적 태도, 애정적-통제적 태도, 거부적-자율적 태도, 거부적-통제적 태도 등 4가지 양육유형으로 분류된다(Schaefer, 1959).

첫째, 애정적-자율적 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자녀에게 애정을 갖고 애정을 주며 자녀 인격을 존중하는 양육태도로 부모가 자녀에게 독립심과 자율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양육을 받은 자녀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고,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남을 대할 때 관용과 애정을 가진다.

둘째, 애정적-통제적 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부모가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동시에 간섭과 통제로 소유적인 태도와 과보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서 양육을 받은 자녀는 의존적이어서 창의성과 사회성이 부족하고, 지나친 통제로 불안정한 정서상태와 내성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셋째, 거부적-자율적 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주지 않고,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며 제멋대로 행동하게 하여 방임, 무관심, 태만, 냉담하게 대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양육을 받은 자녀는 정서적·사회적으로 미성숙한 행동을 보이며 매사 불안과 소극적인 행동이 보인다.

넷째, 거부적-통제적 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도 없고, 냉담하며,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체벌을 가하는 거부적, 독재적, 권위적인 태도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양육을 받은 자녀는 자아형성에 문

제가 많게 되며 사회성이 부족하고 때론 퇴행적인 행동을 보인다.

Becker(1964)에 의하면 양육태도의 유형을 허용-제한, 적대-온정 등의 차원으로 분류 후 민주적-권위적, 과보호-무시 등으로 축소 개념화하였다. 그는 부모양육태도가 온정적이고 허용적일 때 자녀가 원만한 대인관계, 높은 자존감 그리고 확고한 자아 개념을 보인다고 하였다(Becker, 1964). 반대로 적대적, 제한적이면 자녀는 학업성적 불안이나 대인관계 부적응, 신경증적 행동장애, 기타 사회비행과 같은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이춘재 외, 1991).

Baumrind(1971)는 양육태도의 접근방식을 유형론적으로 제시하였고, 이 유형은 통제의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는 양육태도를 허용적 태도, 권위있는 태도, 권위주의적 태도로 분류하였는데,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절대적이며 규칙 준수를 강요하고 처벌과 명령을 선호하는 양육태도이다. 권위가 있는 양육태도는 규칙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설명을 해주며 애정적이고, 항상 일관성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자녀의 독립적인 결정을 존중한다. 허용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을 수용해주며 통제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는 양육태도이다(박현옥, 2017). 이후 Baumrind(1971)의 부모양육태도 유형을 토대로 권위적 유형, 허용적, 독재적, 방임적 유형(Maccoby & Martin., 1983)과 거부, 온정, 과잉보호, 편애 네 가지 유형(Perris et al., 1980)으로 구분되었다. 이처럼 학자들마다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유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부모양육태도를 개념화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들은 다르더라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정서적·사회적 측면에서 형성되는 요소는 동일하다.

Ryan et al.(1995)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유형을 자율성지지, 온정, 관여, 구조화 등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제시하여 이 요소들이 성공적인 자녀양육과 자녀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밝혔다.

허묘연(2004)은 국내의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들이 거의 국외의 평가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양육태도 평가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허묘연(2004)은 우리나라 고유한 문화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 설명, 감독, 과잉기

대, 비일관성, 과잉간섭, 방치, 애정, 학대 등의 8개 양육태도 하위요인을 제시하였다.

한편, 기존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들이 아동발달이론을 근거로 연구개발된 것이 아니다 보니 아동의 욕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외에서는 1980년대 이후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토대로 한 양육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김소현·김아영, 2012; Farkas & Grolnick, 2010). 자기결정성 이론은 사회 및 환경적 맥락에서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의 만족이 인간의 안녕감과 정신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Deci & Ryan, 2000).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양육방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Skinner et al.(2005)은 내적동기와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양육태도로 자율성 지지, 따스함, 구조를 제시하였고, 반면 심리적 욕구 충족을 저해하는 양육태도로 거부, 강제, 혼란 등을 제시하여 총 6개의 양육태도 하위요인을 설명하였다. 부모의 따스함과 관여는 아동의 관계성에,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아동의 자율성에, 마지막으로 구조는 아동의 유능감에 영향을 끼친다(Skinner et al., 2005). 이와 반대로, 부모의 거부는 아동의 관계성을 약화시키며, 부모의 강제는 아동의 자율성 발달을 방해하고, 혼란은 아동의 유능감 경험을 방해한다(정교영·신희천, 2011; Skinner et al., 2005).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자기결정성 이론이 주목받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기결정성 동기와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다(김소현·김아영, 2012; 김태명·이은주, 2017; 정교영·신희천, 2011). 자기결정성 이론을 토대로 한 한국판 청소년용 부모양육태도척도의 하위요인으로 6개의 독립된 요인인 따스함, 거부, 자율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등이 제시되었다(김태명·이은주, 2017). 기존의 양극성 3차원 모형에 따르면 애정의 반대는 거부, 자율지지의 반대는 강요, 구조제공의 반대는 비일관성으로 간주되어 낮은 애정이 곧 거부적 양육태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에 문제가 제기되었다(김태명·이은주, 2017). 즉, 애정이 낮지만 동시에 거부적 태도도 낮

은 양육 태도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양육 상황의 무수한 상호작용을 고려해 볼 때 6요인 단극성 모형이 양육태도의 효과를 설명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김태명·이은주, 2017). 그리고 애정, 자율적지지, 구조제공 등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의지, 존경, 믿음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거부, 강요, 비일관성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모에 대한 의지, 존경, 믿음과 부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명·이은주, 2017).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양육태도는 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며, 자녀의 지적, 정서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Becker, 1964).

본 연구에서는 김태명·이은주(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하위변수로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등을 긍정적 양육태도로, 강요, 거부, 비일관성 등을 부정적 양육태도로 설정하여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표 2-1> 연구학자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의 유형

연구학자	부모양육태도 유형
Symonds(1949)	수용-거부, 지배-복종
Schaefer(1959)	애정-거부, 자율-통제
Becker(1964)	허용-통제, 온정-적대
Baumrind(1971)	허용적, 권위있는, 권위주의적
Perris et al.(1980)	온정, 거부, 과잉보호, 편애
Maccoby & Martin(1983)	권위적, 허용적, 독재적, 방임적
Ryan, Deci & Grolnick(1995)	온정, 구조화, 관여, 자율성 지지
허묘연(2004)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학대, 비일관성, 방치, 과잉간섭
Skinner et al.(2005)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 강제, 거부, 혼란
김태명, 이은주(2017)	따스함, 구조제공, 자율성지지, 강요, 거부, 비일관성

출처: 연구자가 정리하여 작성

2) 긍정적 양육태도

긍정적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구성이나 가정의 사회적 지위와 함께 사회의 문화적 배경, 가정의 분위기, 자녀의 개인적 조건, 부모의 개인적 조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부모의 성장배경, 부모의 성격, 부모의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Fishbein & Aizen, 1975).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이루고 있는 요인 중에서 합리적인 설명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대하는 양육태도이고,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누고 의견을 존중하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보이며,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허묘연, 2004).

긍정적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순규, 2004).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부모의 일관된 양육태도로서 청소년의 긍정심리를 형성하게 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 (최진, 2016). 이러한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 수행을 비롯해 심리적·사회적 적응에 크게 기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ascoe et al., 2009).

Skinner et al.(2005)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로 자율성지지, 따스함, 구조제공 등을 설명하였다. 자율성지지는 자녀의 자기 주도적이고 자율적이고자 하는 능력을 지지하는 양육이며(정교영·신희천, 2011), 부모의 자율적 지지는 학업성취도와 자율적 동기, 심리적 건강, 인지 능력, 열의 및 긍정적인 태도를 포함한 심리 사회적 지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asquez et al., 2015). 따스함은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표현으로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심과 배려, 정서적 지원 등이 포함되는 양육태도이고(이미라·전향신, 2020), 구조제공은 자녀의 행동이나 체벌 및 훈육 등에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가지는 양육태도이다(Skinner et al., 2005).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능률이나 학업성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김민선(2021)은 중학생 자녀가 부모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학업열의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고, 최영미(2020)도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가 자녀의 학업열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고, 부모가 자녀를 따스하게 대하고 자율성을 지지하며 구조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태도는 자녀의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등의 양육태도를 포함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단일 변인으로 하여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3) 부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훈육에 일관성이 없으며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잉 기대, 과잉 간섭을 하고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신체적인 손상이나 학대를 가하며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의 방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허묘연, 2000).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부모의 의견이나 가치관의 대립으로 오는 양육태도 불일치로서 청소년에게 스트레스, 우울 및 사회에 대한 부적응적 행동 양상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최진, 2016).

부모가 방임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은 낮아지고,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우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사관계 간에 부적 상관을 나타내므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이윤아, 2014).

Skinner et al.(2005) 연구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거부, 강요, 비밀관성을 설명하였다. 거부는 부모가 자녀를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태도로 따스함과 반대되는 태도를 말한다. 거부의 표현으로는 혐오, 적개심, 가혹함, 과잉행동, 짜증 등이 있으며, 비판, 조롱, 반대 등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Skinner et al., 2005). 강요는 부모가 자녀에게 매우 엄격하며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독재적인 태도로 자율성지지와는 반대되는 양육태도이며, 자녀에게는 자율권을 주지 않고 자녀의 마음과 행동을 통제하려고 한다. 또한 자신의 삶의 방식과 기준을 강요하며, 정해진

규칙은 무조건 복종하도록 유도한다(Skinner et al., 2005). 비밀관성은 부모가 자녀에게 기준도 없이 훈계나 훈육 등을 하는 양육태도로 체벌을 하기도 하고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 양육하는 행동들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부모의 기분에 따라 화를 냈다가 말다가를 반복하기도 하고 일관성이 없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을 중시하는 청소년시기에 학업무기력을 경험하게 되고 낮은 주의집중력과 낮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등 학업열의가 낮아 결과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조현철, 2013 ; Vallerand et al., 1997).

임효진·이소라(2020)는 부모의 강요, 거부, 비밀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열의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거부, 강요, 비밀관성 등의 양육태도를 포함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단일 변인으로 하여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제2절 학업열의

1. 학업열의 개념

열의(engagement)는 긍정심리학의 연구와 함께 영향을 받아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한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대두된 개념이다(조주연·김명소, 2013). 열의는 개인의 인지·정서·행동 등을 만족스러운 수행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선호하는 자아의 표현과 활동을 의미하며, 어떠한 특정 행동이나 대상, 사건 등에 국한되지 않는 비교적 포괄적인 개념이다(Kahn, 1990 ; Schaufeli & Bakker, 2004).

열의에 관한 연구 초기에는 주로 직장에서 일하는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된 직무열의에 대한 개념들의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승진, 2013). 직무열의란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인지적·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를 투여하는 것으로, 직무열의가 높을수록 자신의 업무

에 높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비교적 적게 받는다(권인수 · 최영근, 2011). 이러한 관점에서 직무열의를 청소년의 학업에 적용하면서 학업열의가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학업열의란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미를 이끌어내며 학업에 집중하게 해주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정신적 회복력을 의미한다(Schaufeli et al., 2002a). 학업열의는 학업소진과는 반대 개념으로 시작하여 학업소진에 비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긍정심리학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업열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자영 · 이상민, 2012 ; Schaufeli et al., 2002a). Schaufeli et al.(2002b)은 열의가 소진의 반대 개념으로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학업열의가 높을수록 내적인 긍정적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의 감소와 학업성취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학업열의가 높은 학습자는 학업성취 또한 높은 것으로 연구 보고 된 바 있다(Skinner et al., 1990 ; Handelsman et al., 2005). 학업열의에 대한 연구는 학생들을 동기화시키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강화요인과 방안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조한익 · 이현아, 2010). 이처럼 학업열의는 학생들이 학업수행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많은 연구가들의 학업열의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학업열의의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청소년기에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고 학업소진을 예방 할 수 있는 학업열의에 대한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학업열의 구성요소

Schaufeli et al.(2002b)은 열의가 소진의 반대 개념이 아닌, 독립된 개념으로 간주하고, 학업열의 구성요소를 활기, 헌신, 몰두로 구분하였다. 활기(vigour)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피곤함 없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에너지와 정신적 탄력성이며 공부에 대한 의지와 어려움에 부딪혔

을 때조차 공부를 계속 지속해 나가려는 의지로 볼 수 있고, 헌신(dedication)은 공부에 대한 중요성, 가치, 열정, 자긍심과 도전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Schaufeli et al., 2002b). 마지막으로 몰입(absorption)은 공부에 매우 집중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공부와 자신을 떨어뜨리기가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이현아, 2011). 즉, 학업열의는 학업으로 인해서 충만한 상태이며 어떤 하나의 사건, 대상 혹은 개인에게 잠깐 특별하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Schaufeli et al., 2002b).

이자영·이상민(2012)은 우리나라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형 학업열의 척도를 개발하여 그 구성요소를 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 등의 4개 척도로 구성하였다. 기존 척도에 효능감을 추가한 것이다. 헌신은 공부에 대해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이 요인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공부에 대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이자영·이상민, 2012). 활기는 공부를 하고자하는 개인의 에너지 수준을 측정하며 공부하고자 하는 에너지 수준이 높은 사람은 더 즐겁게 공부에 임한다고 할 수 있다. 효능감은 공부를 잘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한국의 입시 경쟁으로 인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에게는 스스로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학업열의를 낮추는 일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효능감은 학업열의를 필요로 하는 요소이다. 몰두는 집중 정도를 측정한다. 몰두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공부에 집중을 잘하며 시간 간 줄도 모르고 공부에 전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자영·이상민(2012)의 학업열의 척도를 토대로 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 등을 포함한 하나의 변인으로 하여 학업열의를 검증하고자 한다.

제3절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1. 삶의 만족도 개념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행복과 안녕이다. 삶의 만족도는 많은 학자들로부터 다양한 정의로 연구되어 왔다. Neugarten(1961)은 삶의 만족도

를 자신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서 생활하며,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와 생각을 지니는 것이라 하였다.

Diener(1984)는 삶의 만족도를 현재의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대체되는 주관적 안녕감이라 하였고, Schalock(1996)는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생활속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에 대한 판단이나 자신의 기대에 얼마나 충족하는지 정도를 말한다고 하였으며, Huebner(2004)는 개인의 삶 속에서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인지적으로 평가했을 때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알고, 현재까지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잘 수행해 왔음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현재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의 정도로, 자신의 삶에 대한 질적 수준을 호의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Fujita & Diener, 2005).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자신이 사는 게 즐겁고 희망적이며 스트레스와 고민이 적은 상태로 느끼는 행복한 상태를 말한다(김신영 외, 2006).

Day et al.(1996)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보고 현실적인 상황과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기대수준을 비교하면서 삶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해석과 평가로 개인의 삶의 만족감을 강조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삶의 전반적인 평가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과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라고 정의 할 수 있고(최성재, 1986), 개인이 주관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것으로 삶에 대한 의식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김경민, 2010). 즉, 삶의 만족도를 본인의 삶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와 정서적인 행복감이 포함된 것으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황재원 · 김계현, 2009).

삶의 만족도를 주관적 안녕감이라고도 하는데 주관적 안녕감의 구성요소인 삶의 만족, 긍정정서, 부정정서에 특정변수들이 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행복한 문화, 인격, 인지목표 및 객관적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기도 한다(Diener et al, 1999).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성인기로 가는 과정이고 성인기의 전반에 걸쳐

주관적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발달과 심리적·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과 진로를 고민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학년을 더해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감소되고(김남정·임영식, 2012), 낮은 만족도는 좌절감, 소외감, 무력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청소년의 가출, 음주와 자살 등의 충동과 같은 문제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청소년기의 발달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김지혜, 2012).

이상으로 살펴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사는 것이 긍정적인 만족과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주관적 안녕 상태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2. 청소년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과정이며 심리적·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달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삶의 만족도는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갖게 되고 심적 요구에 대한 갈등이 많아 역할의 혼란을 겪게되고 많은 부분들이 불안정한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가족형태의 급격한 변화 등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긴다(이순성, 2010).

통계청의 ‘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겨울호’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 33.8%는“ 죽고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나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유 학업문제를 뽑았고 중·고등학생들에게 1위로 나타났고, 중학생들은 2위로 가족 간의 갈등을 뽑았고, 고등학생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는 잘하지만 학업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리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척도 기준을 10점으로 했을 때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은 6.6점인데 비해, 스페인과 네덜란드, 아이슬란드는 8점 이상이고 한국을 제외한 27개국 OECD 국가들의 평균은

7.6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학업성취, 학업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곳이 가정과 학교이고 학업에 대한 과업이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한국사회의 높은 학업적 관심과 요구로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육현실에서 학생이 지속적이고 긍정적으로 학업에 참여하게 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학업열의를 들 수 있다(김하람, 2021). 학업열의는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학업열의가 필요하고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내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은 학교, 가정, 친구, 내적요인 등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관계로 작용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 등을 포함한다. 김남정과 임영식(2012)은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변인으로 우울과 긴장, 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보고 했고, 도종수(2011)는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사회적 지원, 여가생활 등이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요인 중 청소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다(박미애 외, 2013). 이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부모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가족관계 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 부모양육태도, 가족의 기능, 부모와의 애착, 가족의 지지 등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연구 되어 왔으며 양육태도와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가족의 지지와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정문경, 2014). 반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방식을 부정적으

로 인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김은아·배민영, 2016).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이 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과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학업열의의 심리적인 요인간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4절 또래관계

1. 또래관계 개념

청소년기는 학교에 있는 시간들이 많고 또래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으므로 서로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는 시기로, 부모와의 관계만큼이나 또래관계가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된다. 또래란 연령이 비슷하고 심리적·지리적으로 근접한 곳에서 유사한 행동수준으로 서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대상으로 정의하고, 또래 사이에 발생하는 평등한 상호작용을 토대로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자발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관계를 또래관계로 규정하였다(Hartup, 1996). 그리고 Shaffer(2000)는 또래는 동등한 지위에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 수준이 비슷하여 사회적으로 동일시 되는 대상이라 하였다. 홍승표(2019)는 또래의 개념을 비슷한 연령과 정신적 성숙함을 가진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영향을 주고 받는 대상으로 정의하고 서로 상호작용 및 영향을 주는 집단 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또래관계라고 하였다.

청소년에게는 부모 외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가 바로 또래관계이며, 서로에게 중요한 강화자이자 지지자이기도 하고, 또래관계 속에서 서로 칭찬과 비난 등의 반응에 따라 서로 수용과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 맺는 또래관계는 생물학적 변화와 사회적 환경 그리고 인지능력의 발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Berndt, 1982). 그리고 또래집단은 비슷한 발달

단계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사회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박선희, 2009). 또한, 자신과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 꿈, 가치관을 공유하며 자아를 발전·형성시켜 나간다(김유식·이솔잎·최재필, 2016).

또래관계는 수용과 거부되는 차원과 긍정적인 지지와 갈등의 부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표현하게 되며, 긍정적 요인에는 친밀감, 정서적지지, 또래관계만족 등과 부정적 요인으로 일방적 주도, 무시, 갈등 등을 포함 한다(유안진 외, 2002). 또래관계는 서로 좋아하고 즐거움을 느끼며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쌍방의 관계를 의미한다(김재은, 2007). 따라서 또래관계는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사회적 능력 발달을 향상시킨다(최순영, 2005).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사회관계적인 기술 등의 높은 적응능력과 강한 소속감을 가진다(오승환, 2001). 그 반면에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생활이 힘들어지면서 학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학급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소외감을 가지게 되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어려워 학업성취도 낮아지게 된다(정정화, 2008; 김민성 외, 2012).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주로 또래 관계와의 상호교류의 시간이 많고 그 속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므로 정서적·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를 서로 동등한 관계로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정서적·사회적 관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또래관계 영향요인

청소년들은 가족보다는 또래친구들과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래 친구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있어서 또래집단은 청소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혼란을 경험하고,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겪는데, 이때 자신과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고 문제와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또래와 동질감을 형성하게 된다(Hartup, 1992; 이승연, 2009, 재인용).

Piaget(1932)는 그의 인지발달이론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또래관계는 균형적, 수평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대칭적, 수직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아동-성인 간의 관계와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보았다.

청소년들은 급격한 발달 과정을 겪는 시기로 또래와의 관계에서 독특한 면을 지닐 수 있다.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교육, 심리, 사회적 제반 환경 특성은 청소년들이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구본용 외, 1999) 첫째, 청소년기는 다양한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급격하게 인간관계가 많아진다. 둘째,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발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며,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진다. 셋째, 청소년들은 또래들과 정서적·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또래들과 서로 어울리며 함께 하는 것 자체로 만족감을 갖는다. 넷째, 청소년은 또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되며, 또래를 사회적인 지지자원으로 받아들인다. 다섯째, 청소년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또래집단원에 대한 동조의식이 높고, 또래 집단 내에서 자신만의 위상을 만든다. 여섯째,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부모가 또래 관계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청소년 자신의 긍정적인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일곱째,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잘 형성되면 또래관계의 질도 더욱 발달된다(구본용·김택호·김인규, 1999).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 부모의존 관계에서 벗어나 의존적이면서도 동등한 관계로 나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래관계의 성공 여부는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김광수, 2002),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상황과 문제 발생 시에 의논과 도움되는 충고를 해주는 사회적 지지자로서 부모 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준다(박영신·김의철, 2004). 특히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사회관계적인 기술 등의 높은 적응능력과 강한 소속감을 가진다(오승환, 2001). 반면에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자원의 기능뿐만 아

나라 갈등과 경쟁 또는 배신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포함된다(김재은, 2007).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청소년은 학교생활을 힘들어하거나 학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정정화, 2008), 학급에서 지지를 받지 못해 소외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갖지 못하면 학업성취도 낮아지게 된다(김민성 외, 2012). 이와 같이 또래관계가 부정적일수록 학업 성취가 떨어지고 학업소진이 증가함에 따라 학업열의까지 감소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또래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정서적 안정을 주고 학업에 흥미를 가지게 되므로 학업열의가 매우 증가 할 것으로 여긴다.

종합해보면 청소년 시기의 또래관계는 부모의 의존에서 벗어나 수평적이며 동등한 관계로 상호의존적이고 사회적 지지자로서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5절 선행연구

1.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열의와의 관계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 행동,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학업에 대한 태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 입시 위주의 사회 속에서 경쟁을 해야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학업에 대한 과업이 매우 중요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학업열의에 대한 에너지를 쏟아가며 만족할 만한 학업성취를 이루려고 한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참여 및 학업성취의 영향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살펴보면, 홍국진·이은주(2017)는 부모가 자율성 지지와 구조제공을 해주는 양육태도의 양상을 보일 경우, 학업참여와 학업성취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둘 변인 간에 자녀의 자기결정 동기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을 보면 Farkas와 Groinick(2010)의 연구 보고에서 부모와 자녀에게 분명한 기대와 규

칩을 세우고 자녀에게 구조제공의 양육태도를 통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태도는 학업효능감과 자율적 동기에 큰 영향을 주므로 학업열의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미라와 전향신(2020)은 부모의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이 학업열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고, 김민선(2021)은 중학생이 부모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학업열의가 높게 나타났다. 염혜선·이은주(2020)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성 지지와 구조제공이 수반될 수록 학업열의가 높게 나타나 학업적·정서적·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문혜성(2016)은 연구에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습관여가 학업열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고, 임연옥(2018)의 연구 보고에서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증가할수록 학업열의의 수준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최지원(2021)은 개인의 환경적 변인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열의와 높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반면에 김선정(2020)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학업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고, 임효진와 이소라(2020)는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는 학업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고, 부정적 양육태도가 학업열의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부모양육태도의 긍정적 태도·부정적 태도 중 한쪽 부분만을 연구한 경향이 많고, 대부분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연구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부정적 태도를 함께 다뤄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현재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의 정도로, 자신의 삶에 대한 질적 수준을 호의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Fujita & Diener, 2005).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자신이 사는 게 즐겁고 희망적이며 스트레스와 고민이 적은 상태로 느끼는 행복한 상태를 말한다(김신영 외, 2006).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보

니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상태이다. 청소년은 아동보다 생활 만족도나 행복감을 더 낮게 지각하며, 학업성취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유순화, 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 대학입시 중심의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교육제도를 경험하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행복하지 않으며,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도 한다(임중필, 2016). 그러나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남석진, 2015).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삶의 만족감이 낮아지고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내적 에너지인 학업열의가 필요하다.

권은경(2020)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개인적인 변인인 삶의 만족도와 환경적인 변인인 부모관계는 학업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부모와의 관계는 학업열의를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염혜선과 이은주(2020)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구조제공은 학업열의, 또래관계 질 및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고, 공격성에는 부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높을수록 학업열의와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구조제공이 높은 수준으로 수반될수록 더욱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보고 하였다. 즉,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학업열의를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살펴본 선행연구를 근거로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학업열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영향 관계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3. 또래관계의 조절효과

청소년 시기에 또래집단은 서로의 신념, 가치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지원

으로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며, 개인의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교생활 속에서 또래관계는 학업열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상섭·조홍식(2015)은 체육수업에서 긍정적인 교사관계와 친구관계는 학생들의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임효진, 이소라(2020)의 연구에서는 친구관계는 학업열의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릇을 매개로 학업열의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남지영과 정혜원(2021)는 중학생이 인식한 친구관계는 학업열의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열의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n(2005)은 부모와 또래의 학업지지를 통해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고, 조수현 외(2018)는 학업적 자원모형을 바탕으로 학업열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 결과에서 또래지지, 부모의 학업적지지, 교사의 자율성지지 등이 학업적 자원으로서 학업열의를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조혜지(2019)는 낮은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더라도 긍정적 또래관계가 학교부적응을 완충했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모의 부정적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에 긍정적 또래관계가 완충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염혜선과 이은주(2020)는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구조제공은 학업열의, 또래관계 질 및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고, 공격성에는 부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높아갈수록 학업열의와 또래관계 질이 높게 나타났고, 높은 구조제공이 수반될수록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보고 하였다. 즉,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와 또래관계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또래관계 간에는 상호작용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어 주요 변인들 간에 영향관계가 있다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의 영향관계에서 또래관계가 어떠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4. 선행연구 평가

이상으로 살펴 본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 또래관계 등의 변인 간에 서로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미비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이 학업열의를 학업소진, 학업 스트레스, 학업성취, 학교생활에 미치는 간접요인으로써 상호관계 정도로만 보고되어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 본 선행연구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관계의 선행연구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를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청소년에게 환경적인 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 요인인가를 확인하는 연구 결과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부모양육태도의 긍정, 부정적 태도 중 긍정적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보고들이 대부분여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통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관련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삶의 만족도의 연구 변인이 주로 영향을 주는 요인 보다는 영향 받는 요인으로서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학업열의 간의 연구보고는 상호관계성만 검증 할 뿐 삶의 만족도의 직·간접 영향효과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관련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또래관계 간에 상호작용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해 또래의 긍정적인 관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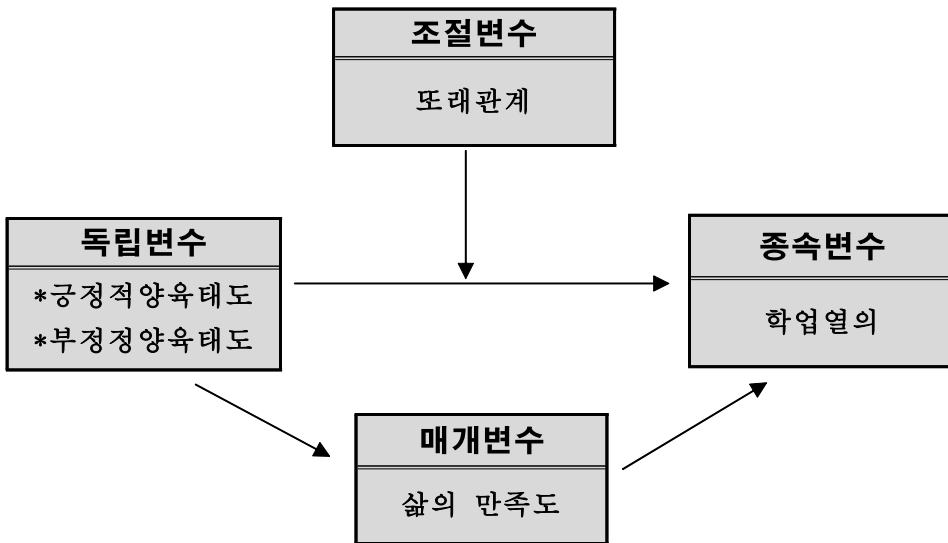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연구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를 하위변인으로 선정하여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의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와 또래관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므로 상호관계성을 넘어 영향관계에 대한 효과 수준을 검증하고 연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와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와 또래와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조절효과 연구분석을 통하여 변수들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학업열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독립변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선정하여 하위 변수로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를 선정하고,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학업열의를 선정하였다. 매개변수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로, 조절변수는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 모형은 [그림 3-1]과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3-1]

제2절 연구가설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와 또래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학업열의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인 부모 양육태도는 두개의 하위 변수를 두어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매개변수로는 삶의 만족도를 선정하였으며, 조절변수로는 또래관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 학업열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에 삶의 만족도는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2-1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에 삶의 만족도는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2-2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에 삶의 만족도는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3. 또래관계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3-1 또래관계는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3-2 또래관계는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제3절 주요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1. 변수의 조작화 정의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청소년의 학업열의 척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척도, 또래관계 척도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수에 관한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및 주양육자가 자녀 양육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태도와 양식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부정적 태도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2018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김태명·이은주(2017)의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양육태도척도 설문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긍정적 양육태도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따스함과 자율적지지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각 4문항씩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로 응답된다. 긍정적 양육태도의 문항들은 합산하여 평균값을 구하여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긍정적 양육태도에 포함된 8개 설문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0.92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태도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거부(3문항), 강요(2문항), 비밀관성(1문항)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로 응답된다. 부정적 양육태도의 문항들은 합산하여 평균값을 구하여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부모의 양육태도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포함된 6개 설문 문항

들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는 0.842로 나타났다.

2) 학업열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열의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의지와 수준 높은 내적 에너지로 정의된다. 청소년의 학업열의는 2018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이자영·이상민(2012)의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판 학업열의 척도 설문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헌신(3문항), 활기(3문항), 효능감(4문항), 몰두(4문항)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로 응답된다. 학업열의의 척도의 원문항은 총 16문항이었으나 요인 적재치가 0.4미만이 나온 문항을 삭제하다보니 총 14문항이 되었다. 청소년의 학업열의의 문항들은 합산하여 평균값을 구하여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열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포함된 14개 설문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는 0.92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현재 생활이 긍정적인 만족과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주관적 안녕 상태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2018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로 응답된다.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포함된 5개 설문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는 0.851로 나타났다.

4) 또래관계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서로 동등한 관계로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정서적·사회적 관계로 정의한다.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2018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긍정적 또래관계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였고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래관계는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로 응답된다.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포함된 8개 설문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0.897로 나타났다.

2. 설문구성 및 측정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학업열의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2018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KCYPS) 항목 구성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따스함 및 자율적지지 8개 문항, 부정적 양육태도는 거부, 강요, 비밀관성을 포함한 6개 문항, 학업열의는 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를 포함한 14문항, 삶의 만족도는 5개 문항, 또래관계는 긍정적 또래관계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3-1> 설문지 구성

변 수		설문문항	문항수	척도
독립변수	부모 양육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심 -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함 -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함 -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김 -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심 -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심 -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줌 -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함 	8	4점 Likert
	부모 양육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함 -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 라고 느끼게 하심 -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 하지 않으심 -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심 -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안 돼”라고 하심 -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심 	6	4점 Likert

변 수	설문문항	문항수	척도
종속변수 학업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함 -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짐 -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김 -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김 - 나는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남 - 나는 공부를 잘함 - 나는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음 -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음 -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음 -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림 -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폭 빠짐 -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음 - 나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감 	14	4점 Likert
매개변수 삶의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까움 -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음 - 나는 내 삶에 만족함 -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룸 -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임 	5	4점 Likert
조절변수 또래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냄 -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음 -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함 -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음 -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줌 -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름 -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음 - 친구들과 관계가 좋음 	8	4점 Likert

제4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와 또래관계의 조절효과를 분석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8차 연도의 중1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 2018의 조사 모집단은 2017년도 교육기본통계를 표집 틀로 하여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통해 표집된 중학교 1학년 2,590명(남 1,405명, 여 1,185명)의 자료를 통계 분석으로 사용하였다.

2.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응답자의 성별, 건강상태, 학업성취 만족도, 부모의 학력, 경제수준 등을 <표 3-2>와 같이 살펴보았다.

성별 면에서는 남학생이 1,405명으로 54.2%이고, 여학생이 1,185명으로 45.8%의 비율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조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 1,413명 54.6%, ‘매우 건강하다’ 968명 37.4%,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196명 7.6%, ‘전혀 건강하지 않다’가 13명 0.5%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 대부분이 건강상태가 좋은편이라고 생각하였다. 청소년의 학업성취 만족도는 보통이 874명으로 33.7%, 만족이 819명으로 31.6%, 매우만족 377명으로 14.6%, 불만족 360명으로 13.9%, 매우 불만족 66명으로 2.5%, 잘 모르겠음 94명으로 3.6%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과 만족이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아직 만족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

하는 것 같다.

부모의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부의 경우 대졸이 913명으로 35.3%, 고졸 766명으로 29.6%, 전문대졸 500명으로 19.3%, 대학원졸 251명으로 9.7%, 모름/무응답 118명으로 4.7%, 중졸이하 39명으로 1.4% 순으로 나타났다. 부의 학력 수준은 대졸이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모의 학력 수준은 고졸 896명으로 36.6%, 대졸 771명으로 29.8%, 전문대졸 654명으로 25.3%, 대학원졸 135명으로 5.2%, 모름/무응답 74명으로 2.8%, 중졸이하 60명으로 2.3%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학력 수준은 고졸이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의 경제 수준은 보통이 1,972명으로 76.1%, 하가 320명으로 12.4%, 상이 249명으로 9.6%, 최하가 29명으로 1.1%, 최상이 15명으로 0.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가정 경제 수준은 보통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학생	1405	54.2	
	여학생	1185	45.8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968	37.4	
	건강한 편이다	1413	54.6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196	7.6	
	전혀 건강하지 않다	13	0.5	
학업성취 만족도	매우만족	377	14.6	
	만족	819	31.6	
	보통	874	33.7	
	불만족	360	13.9	
	매우 불만족	66	2.5	
	잘 모르겠음	94	3.6	
학력	부	중졸이하	39	1.4
		고졸	766	29.6
		전문대졸	500	19.3
		대졸	913	35.3
		대학원졸	251	9.7
		모름/무응답	118	4.7
	모	중졸이하	60	2.3
		고졸	896	34.6
		전문대졸	654	25.3
		대졸	771	29.8
		대학원졸	135	5.2
		모름/무응답	74	2.8
가정의 경제수준	최상	15	0.6	
	상	249	9.6	
	보통	1972	76.1	
	하	320	12.4	
	최하	29	1.1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중1 패널자료에 대해서 SPSS 26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수 측정에 있어서 각 설문 문항들 중 다른 속성을 지닌 측정문항이 있는지의 적재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 항목을 요인분석 실시하였다.

셋째, 문항간 Cronbach's α 를 산출하여 설문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넷째, 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과 또래관계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실증분석

제1절 측정도구 검증

1.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설문 도구의 변수 구성의 적합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 높은 항목끼리 묶어줌으로서 변수를 단순화시켜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는 SPSS 26의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변수들의 구성요인 추출을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격적인 요인 추출을 위한 회전방법으로는 요인의 직각회전 기법을 전제한 베리맥스(Varimax)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설문 문항의 채택 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 1.0이상으로 하였고, 적재치는 0.4이하인 항목들은 제거하여 측정하였다.

1) 부모의 양육태도의 요인분석

부모의 양육태도의 요인분석을 위하여 하위요인으로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의 두 개 요인으로 명명하여 추출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표4-1>에서와 같이 고유값이 1이상으로 2개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 적재치는 0.6 이상이고, KMO는 0.932 변수들의 선정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X^2 값은 22645.174,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다. 총 누적 분산 설명률은 62.508%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한 문항들 모두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4-1>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분석 결과

변 수	설문문항	요인값		
		1	2	
부 모 양 육 태 도	긍정적 양 육 태 도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함	0.827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함	0.823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함	0.795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김	0.795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함	0.758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줌	0.754	
		부모님은 나를 믿어줌	0.741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줌	0.731	
	부정적 양 육 태 도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심		0.797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 워하지 않으심		0.774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함		0.764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안 돼”라고 하심		0.695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 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심		0.645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 터 내심		0.620
고유값		5.175	3.576	
분산비율		36.965	25.542	
누적비율		36.965	62.508	

KMO(Kaiser-Meyer-Olkin) : 0.932, X² : 22645.174, 유의확률 : 0.000***

*p<0.05, **p<0.01, ***p<0.001

2) 학업열의 요인분석

청소년의 학업열의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4-2>에서와 같이 총 14문항을 분석하여 고유값이 1이상으로 나타났고, 요인 적재치는 0.6 이상이며, KMO는 0.926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X²값은 24439.598,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다. 총 누적 분산 설명률은 51.168%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업열의의 측정 문항들은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4-2> 학업열의 요인분석 결과

변 수	설문문항	요인값
학업열의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김	0.772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김	0.764
	나는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남	0.760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음	0.760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음	0.736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꼭 빠짐	0.730
	나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감	0.712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짐	0.698
	나는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음	0.698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0.685
	나는 공부를 잘함	0.680
	나는 공부할 때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0.678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함	0.674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음	0.654
고유값		7.163
분산비율		51.168
누적비율		51.168

KMO(Kaiser-Meyer-Olkin) : 0.926, X² : 24439.598, 유의확률 : 0.000***

*p<0.05, **p<0.01, ***p<0.001

3) 삶의 만족도의 요인분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4-3>에서와 같이 총 5문항을 분석하여 고유값이 1이상으로 나타났고, 요인 적재치는 0.7 이상이고, KMO(Kaiser-Meyer-Olkin)는 0.842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X^2 값은 5412.642,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총 누적 분산 설명률은 63.637%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측정 문항들은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4-3> 삶의 만족도 요인분석 결과

변 수	설문문항	요인값
삶의 만족도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음	0.852
	나는 내 삶에 만족함	0.84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룸	0.805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까움	0.753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 것도 바꾸지 않을 것임	0.728
고유값		3.182
분산비율		63.637
누적비율		63.637
KMO(Kaiser-Meyer-Olkin) : 0.842, X^2 : 5412.642, 유의확률 : 0.000***		

*p<0.05, **p<0.01, ***p<0.001

4) 또래관계의 요인분석

또래관계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4-4>에서와 같이 총 8문항을 분석하여 고유값이 1이상으로 나타났고, 요인 적재치는 0.6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KMO는 0.911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X^2 값은 11224.304,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총 누적 분산 설명률은 59.328%로 나타났다. 또래관계 측정 문항들은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4-4> 또래관계 요인분석 결과

변 수	설문문항	요인값
또래 관계	-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름	0.842
	-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음	0.829
	-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줌	0.827
	-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함	0.773
	-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음	0.740
	-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음	0.724
	-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음	0.715
	-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냄	0.698
고유값		4.746
분산비율		59.928
누적비율		59.328

KMO(Kaiser-Meyer-Olkin) : 0.911, X^2 : 11224.304, 유의확률 : 0.000***

*p<0.05, **p<0.01, ***p<0.001

2.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설문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과 척도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전체 척도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 s 알파를 사용하여 그 척도의 결과값으로 각 항목들의 신뢰도 검증을 판단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Cronbach' s 알파값이 0.6이상이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은 '그런 편이다', 4점은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표4-5>와 같이 Cronbach' s 알파값이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8문항)가 0.927로 나타나고, 부정적 양육태도(6문항) 0.842로 나타났다. 학업열의(14문항)의 Cronbach' s 알파값은 0.926, 삶의 만족도(5문항)의 Cronbach' s 알파값은 0.851, 또래관계(8문항) Cronbach' s 알파값은 0.89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신뢰도 분석 결과를 볼 때 측정된 주요 변수들의 Cronbach' s 알파값이 0.8이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표4-5> 신뢰도 분석 결과

변 수		문항 수	Cronbach' s a
부모의 양육태도	긍정적양육태도	8	0.927
	부정적양육태도	6	0.842
학업열의		14	0.926
삶의 만족도		5	0.851
또래관계		8	0.897

제2절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주요 변수들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을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변수의 기술적 통계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들의 특성과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주요 변수인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수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 또래관계 등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4-6>와 같이 산출되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양육태도의 평균 3.3585, 부정적 양육태도 평균 1.7066으로 긍정적 양육태도가 부정적 양육태도 보다 평균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학업열의 전체 평균은 2.4672(표준편차 0.57016)로 분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2.7764(표준편차 0.60390)로 분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 또래관계는 전체 평균이 3.1125(표준편차 0.53435)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들의 최소값은 1.00이고, 최대값은 4.00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은 최저 1.7066에서 최고 3.3585의 분포를 나타내고, 표준편차는 0.53435에서 0.60390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주요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결과 왜도 값은 -0.484에서 0.747이고, 첨도 값은 -0.187에서 0.929로 나타나 측정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와 4를 넘지 않아 모형 검증을 위한 정규분포성의 기본 가정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Hong, Malik, Mary&Lee, 2003).

<표4-6>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n=2,590)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긍정적 양육태도	1.00	4.00	3.3585	0.53750	-0.484	-0.187
부정적 양육태도	1.00	4.00	1.7066	0.57156	0.747	0.440
학업열의	1.00	4.00	2.4672	0.57016	0.042	0.249
삶의 만족도	1.00	4.00	2.7764	0.60390	-0.150	0.064
또래관계	1.00	4.00	3.1125	0.53435	-0.356	0.929

2. 변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 특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여 <표 4-7> 같은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은 하위변수로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분류하여 검증하였다. 긍정적 양육태도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t값은 1.592, 유의 확률 $p=0.111$ 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t값이 3.204, 유의 확률 $p=0.001$ 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업열의의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t값은 4.319, 유의 확률은 $p=0.000$ 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t값은 6.786. 유의 확률은 $p=0.000$ 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적으로 남학생이 여

학생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래관계의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t값은 -5.530, 유의 확률 p=0.000으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4-7> 주요변수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부모의 양육태도	긍정적 양육태도	남자	1405	3.3739	0.53060	0.01416	1.592	0.111
		여자	1185	3.3402	0.54523	0.01584		
	부정적 양육태도	남자	1405	1.7396	0.59056	0.01576	3.204	0.001**
		여자	1185	1.6675	0.54585	0.01586		
학업열의		남자	1405	2.5114	0.58185	0.01552	4.319	0.000***
		여자	1185	2.4146	0.55165	0.01603		
삶의 만족도		남자	1405	2.8501	0.58324	0.01556	6.818	0.000***
		여자	1185	2.6891	0.61646	0.01791		
또래관계		남자	1405	3.0598	0.54813	0.01462	-5.497	0.000***
		여자	1185	3.1750	0.51076	0.01484		

*p<0.05, **p<0.01, ***p<0.001

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양적 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와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의 계수는 0에서 ± 1 사이로, 계수값이 클수록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고, 변화의 방향이 +이면 한 변수값이 커지면 다른 변수값도 함께 커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음(-)이라면 두 변수가 역의 상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4-8>과 같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0.0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긍정적양육태도는 부정적양육태도($r=-0.568$)와는 부적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열의($r=0.338$)와 삶의 만족도($r=0.452$), 또래관계($r=0.332$)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삶의 만족도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부정적양육태도에서는 학업열의($r=-0.186$), 삶의 만족도($r=-0.314$), 또래관계($r=-0.187$)와의 상관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성을 나타낸다.

삶의 만족도는 또래관계($r=0.336$)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8>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평균	표준 편차	긍정적 양육 태도	부정적 양육 태도	학업 열의	삶의 만족도	또래 관계
부모의 양육 태도	긍정적 양육 태도	3.3585	0.5370	1 (0.000)			
	부정적 양육 태도	1.7066	0.57156	-0.568**	1 (0.000)		
학업 열의	2.4672	0.57016	0.338**	-0.186**	1 (0.000)		
삶의 만족도	2.7764	0.60390	0.452**	-0.314**	0.407**	1 (0.000)	
또래 관계	3.1125	0.53435	0.332**	-0.187**	0.235**	0.336**	1 (0.000)

** p<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제3절 가설의 검증

1.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가설 1>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를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종속변수는 학업열의로 하여 <가설1-1>“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두 개의 가설을 두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한 결과는 <표4-9>와 같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은 F값이 $p=0.000$ 에서 167.345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0.115$ 로 11.5%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Durbin-Watson는 1.893의 수치로 2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0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 되었고, F값은 167.345, 유의확률은 $0.000(p<0.05)$ 으로 나타나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함이 확인되었다. VIF(분산팽창지수)도 모두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 중 긍정적양육태도는 t값이 15.296이고 $\beta =0.344$, p값은 $0.000(p<0.001)$ 으로 학업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업열의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어 <가설1-1>“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이 되었다. 반면 부정적양육태도는 t값이 0.426이고 $\beta =0.010$, p값은 0.670으로 학업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업열의의 수준을 낮아지게 한다는 의미이다. <가설1-2>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는 청소년 학업열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가설1> “부모의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채택이 되었다.

<표4-9> 학업열의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영향 분석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다공선성 지수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학업 열의	긍정적 양육 태도	0.335	0.024	0.344	15.296	0.000***	0.677	1.476
	부정적 양육 태도	0.010	0.022	0.010	0.426	0.670		
$R=0.338, R^2=0.115, \text{수정된 } R^2=0.114, F=167.345, p=0.000, D-W=1.893$								

*p<0.05, **p<0.01, ***p<0.001

2.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인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종속 변수인 학업열의 간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Baron & kenny의 3단계 절차에 따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은 1단계~3단계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2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3 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별 분석을 통하여 변수들 간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제2단계에 회귀분석으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보다 커야 매개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전에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과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대한 삶의 만족도의 영향을 알아보고, 매개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영향 관계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확인 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의 두 변수와 청소년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는 <표4-10>과 같이 $p=0.000$ ($p<0.001$)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긍정적양육태도의 t 값은 19.021이고 β 값은 0.404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양육태도의 t 값은 -3.961이고, β 값은 -0.084로 삶의 만족도에 부적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10>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영향 분석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준화 계수(β)	t	유의 확률	R ²	F	Durbin - Watson
삶의 만족도	긍정적 양육태도	0.404	19.021	0.000***	0.209	341.789	1.943
	부정적 양육태도	-0.084	-3.961	0.000***			

* $p<0.05$, ** $p<0.01$, *** $p<0.001$

2)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대한 삶의 만족도의 영향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학업열의 간의 영향 관계는 <표4-11>과 같이 $p=0.000$ ($p<0.001$)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t 값은 22.666이고 β 값은 0.407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관계로 나타났다.

<표4-11> 청소년 학업열의에 대한 삶의 만족도의 영향 분석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준화 계수 (β)	t	유의 확률	R ²	F	Durbin - Watson
학업 열의	삶의 만족도	0.407	22.666	0.000***	0.166	513.727	1.898

* $p<0.05$, ** $p<0.01$, *** $p<0.001$

3)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가설2>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에 삶의 만족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2-1>“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에 삶의 만족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2-2>“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에 삶의 만족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두 개의 가설을 두어 통계적 매개효과 분석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은 1단계~ 3단계의 절차를 가지고 회귀분석 검증을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긍정적양육태도와 부정적양육태도의 두 하위변수를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의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4-12>와 같이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로 긍정적양육태도를, 종속변수로는 삶의 만족도를 투입시켜 단순회귀분석 결과 β 값이 0.452, $t=25.771$, $p=0.000$

$(p < 0.001)$ 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로 긍정적 양육태도를, 종속변수로는 학업열의를 투입시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4-12> β 값이 0.338, $t=18.292$, $p=0.000(p < 0.001)$ 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로 긍정적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는 학업열의를 투입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4-12> 부모의 긍정적양육태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β 값이 0.194, $t=9.819$, $p=0.000(p < 0.001)$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β 값이 0.319, $t=16.151$, $p=0.000(p < 0.001)$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절차 1단계~3단계 이르기까지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제2단계에 회귀분석으로 도출된 표준화 계수 β 값(0.338)이 3단계에서의 회귀분석으로 도출된 표준화 계수 β 값(0.194) 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 결과적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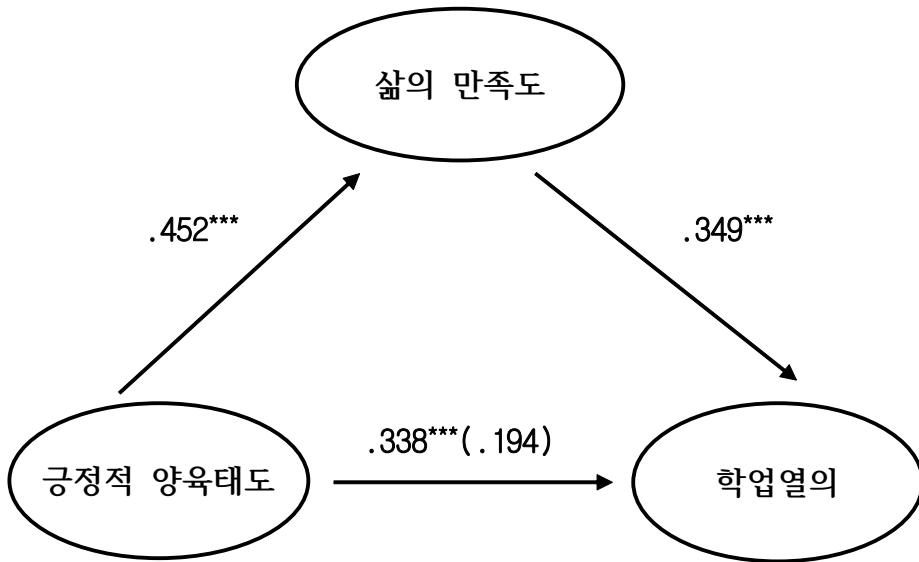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표4-12>와 같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가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와 학업열의 영향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 되어 <가설2-1>“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에 삶의 만족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이 되었다.

<표4-12> 긍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구분	검증 단계	β	표준 오차	t	유의 확률	R ²	F	sobel test
긍정적 양육태도 → 삶의 만족도 → 학업열의	1단계	0.452	0.020	25.771	0.000***	0.204	664.121	13.44189646 (0.000***)
	2단계	0.338	0.020	18.292	0.000***	0.114	334.613	
	3단계 (독립 변수)	0.194	0.021	9.819	0.000***	0.196	314.540	
	3단계 (매개 변수)	0.319	0.019	16.151	0.000***			

*p<0.05, **p<0.01, ***p<0.001

독립변수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종속변수인 학업열의 간의 영향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경로 모형을 [그림4-1]에 제시하였다.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림4-1] 긍정적 양육태도의 학업열의에 대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그림4-1]에서 확인된 경로 계수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양육태도의 영향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0.452$, $p < 0.001$),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직접효과 ($\beta = 0.338$, $p < 0.001$)가 있으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2-2>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에 삶의 만족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가설 검증을 실시하여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양육태도의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4-13>와 같이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로 부정적양육태도를, 종속변수로는 삶의 만족도를 투입시켜 단순회귀분석 결과 β 값이 -0.314 , $t=-16.804$, $p=0.000$ ($p<0.001$)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로 부정적 양육태도를, 종속변수로는 학업열의를 투입시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4-13> β 값이 -0.186 , $t=-9.613$, $p=0.000$ ($p<0.001$)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로 부정적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는 학업열의를 투입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4-13> 부모의 부정적양육태도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β 값이 -0.064 , $t=-3.411$, $p=0.001$ ($p<0.01$)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β 값이 -0.387 , $t=20.496$, $p=0.000$ ($p<0.001$)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절차 1단계~3단계 이르기까지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제2단계에 회귀분석으로 도출된 표준화 계수 β 값(-0.186)이 3단계에서의 회귀분석으로 도출된 표준화 계수 β 값(-0.064)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 결과적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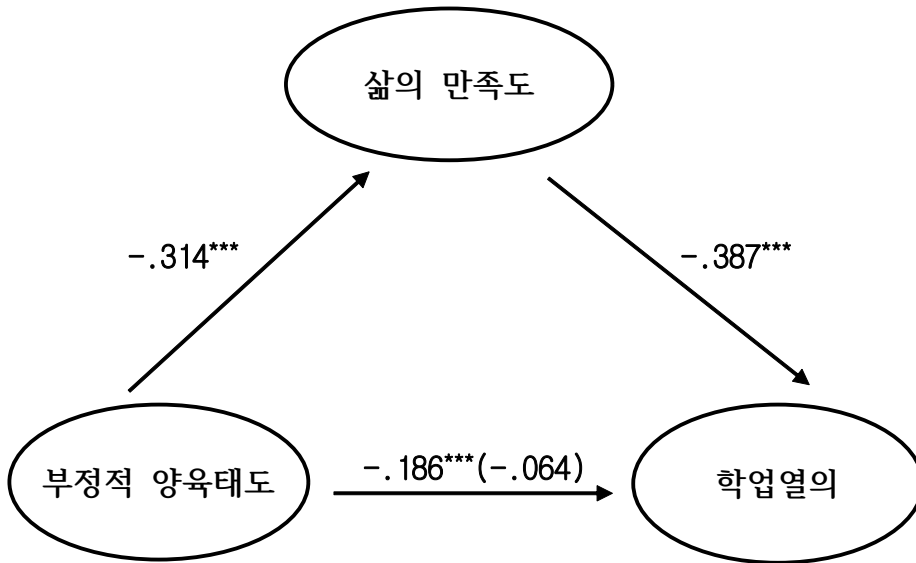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표4-13>와 같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가 부모의 부정적양육태도와 학업열의 영향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 되어 <가설2-2>“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에 삶의 만족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이 되었다.

<표4-13>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구분	검증 단계	β	표준 오차	t	유의 확률	R ²	F	sobel test
부정적 양육태도 → 삶의 만족도 → 학업열의	1단계	-0.314	0.020	-16.804	0.000***	0.098	282.391	-12.82166125 (0.000***)
	2단계	-0.186	0.019	-9.613	0.000***	0.034	92.412	
	3단계 (독립 변수)	-0.064	0.019	-3.411	0.001**	0.169	263.735	
	3단계 (매개 변수)	-0.387	0.018	20.496	0.000***			

*p<0.05, **p<0.01, ***p<0.001

독립변수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종속변수인 학업열의 간의 영향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경로 모형을 [그림4-2]에 제시하였다.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림4-2] 부정적 양육태도의 학업열의에 대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그림4-2]에서 확인된 경로 계수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정적 양육태도의 영향관계는 부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0.314$, $p < 0.001$),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직접효과 ($\beta = -0.186$, $p < 0.001$)가 있으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에 삶의 만족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위계적 회귀분석 검증 결과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3. 또래관계의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는 <가설3> “또래관계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3-1>“또래관계는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에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3-2> “또래관계는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에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두 개의 가설을 두어 조절효과를 검증 분석하였다. 분석 전에 다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 표준화값을 변수로 지정하여 표준화된 값으로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1단계에서 3단계 순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은 3단계의 회귀분석 결과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본다.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긍정적양육태도, 부정적양육태도)의 영향에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투입시키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를,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독립변수X조절변수)을 투입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또래관계의 조절효과

(1) 긍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조절효과

<가설3-1> “또래관계는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에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를 검증 분석 결과 <표4-14>와 같이 R²값이 회귀모형 1단계에서 11.4%, 2단계에서는 13.1%, 3단계에서는 13.2%로 나타났으며, 3단계에서의 유의확률 변화량이 0.135로 0.05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부모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에 관계에서 또래관계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검증이 되어 <가설3-1>는 기각되었다.

<표4-14> 긍정적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또래관계 조절효과

모형단계	표준화 계수 (β)	t	유의 확 률	R ²	F	유의 확 률 변화량	공선성통계량		
							공차	VIP	
1	표준화점수 (긍정적태도)	0.338	18.292	0.000***	0.114	334.613	0.000***	1.000	1.000
2	표준화점수 (긍정적태도)	0.292	15.057	0.000***	0.131	195.762	0.000***	0.890	1.124
	표준화점수 (또래관계)	0.138	7.107	0.000***				0.890	1.124
3	표준화점수 (긍정적태도)	0.291	14.963	0.000***	0.132	131.315	0.135	0.887	1.127
	표준화점수 (또래관계)	0.140	7.192	0.000***				0.886	1.129
	상호작용항 (긍정태도 또래관계)	-0.027	-1.495	0.135				0.995	1.005

*p<0.05, **p<0.01, ***p<0.001

(2)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조절효과

<가설3-2> “또래관계는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에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를 검증 분석 결과 <표4-15>와 같이 R²값이 회귀모형 1단계에서 3.6%, 2단계에서는 7.5%, 3단계에서는 7.6%로 나타났으며, 3단계에서 β 값이 -0.038, 유의확률 변화량이 0.045(p<0.05)로 0.05보다 작게 나타나 부(-)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적인 부모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에 관계에서 또래관계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어 <가설3-2>는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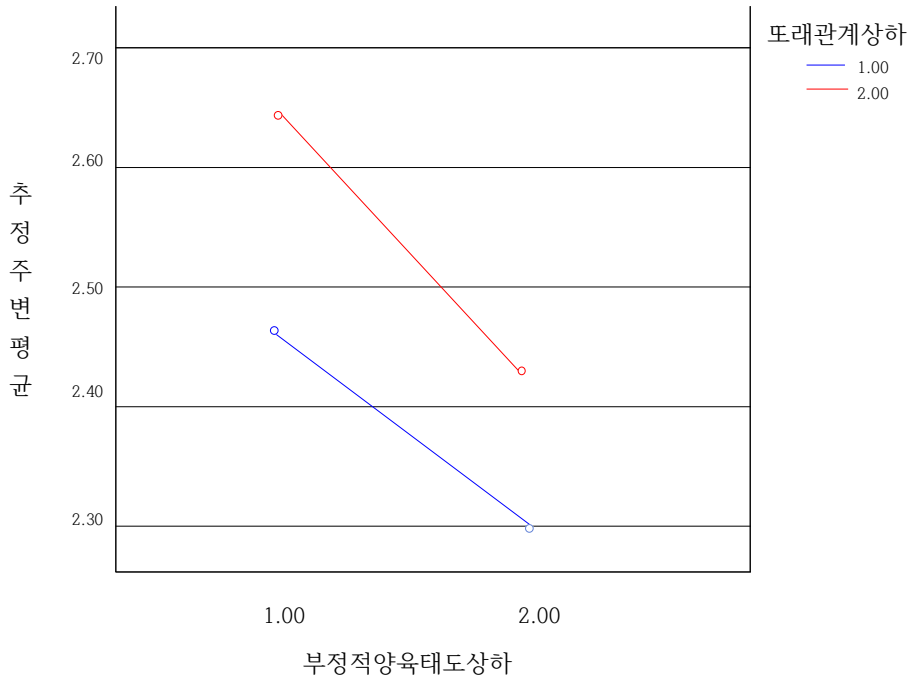
<표4-15>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또래관계 조절효과

모형단계	표준화 계수 (β)	t	유의 확률	R ²	F	유의 확률 변화량	공선성통계량		
							공차	VIP	
1	표준화점수 (부정적 태도)	-0.186	-9.613	0.000***	0.034	92.412	0.000***	1.000	1.000
2	표준화점수 (부정적 태도)	-0.147	-7.627	0.000***	0.075	106.560	0.000***	0.965	1.036
	표준화점수 (또래관계)	0.208	10.797	0.000***				0.965	1.036
3	표준화점수 (부정적 태도)	-0.144	-7.439	0.000***	0.076	72.466	0.045*	0.958	1.044
	표준화점수 (또래관계)	0.205	10.641	0.000***				0.960	1.041
	상호작용항 (부정태도 또래관계)	-0.038	-2.007	0.045*				0.986	1.014

*p<0.05, **p<0.01, ***p<0.001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또래관계 조절효과 검증 결과에 대해 [그림4-3]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학업열의의 추정 주변 평균



[그림4-3]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또래관계의 조절효과

[그림4-3]을 살펴보면 부정적양육태도가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 모두 또래관계 수준이 낮은 청소년 보다 또래관계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학업열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또래관계의 실선의 기울기가 낮은 수준의 또래관계를 의미하는 실선의 기울기 보다 약간 가파른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또래관계의 수준이 높을 때는 부모의 부정적양육태도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가설검증의 결과는 <표4-16>과 같이 확인되었다.

<표 4-16> 연구가설 검증결과 요약

가설	내 용	검증결과
연구가설1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1-1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2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 학업열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연구가설2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에 삶의 만족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가설2-1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에 삶의 만족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가설2-2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에 삶의 만족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3	또래관계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3-1	또래관계는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에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가설3-2	또래관계는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에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제4절 분석결과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청소년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와 또래관계의 조절효과에 관하여 연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검증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첫째, 부모 양육태도의 성별적 인구통계학적 특성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부모의 양육태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하지 않고, 부정적인 양육태도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반면에 선행연구에서의 김선정(2020) 연구 보고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이는 이미라·전향신(2020)의 부모의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이 학업열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김민선(2021)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이 부모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학업열의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 결론이라 볼 수 있으며. 엄혜선·이은주(2020)의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구조제공이 수반될수록 학업열의가 높게 나타나 학업적 적응도 향상되고 사회적·심리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런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업열의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본다. 그러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열의와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업열의의 수준을 낮아지게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의 영향 관계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매개하는지 검증 결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부모의 양육태

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염혜선과 이은주(2020)의 부모 자율성 지지와 구조제공 등 긍정적 양육태도가 학업열의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검증되었고, 공격성에는 부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높을수록 학업열의와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높은 구조제공이 수반될수록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다. 그리고 권은경(2020)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개인적인 변인인 삶의 만족도와 환경적인 변인인 부모관계는 학업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중요한 변인으로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의 영향관계에서 긍정적 또래관계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또래관계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영향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양육태도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혜지(2019)의 낮은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더라도 긍정적 또래관계 학교부적응을 완충했다는 연구와 유사하다. 즉, 부모의 부정적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에 긍정적 또래관계가 완충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있어서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삶의 만족도, 또래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선행적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보다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제 5 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는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변수로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를 선정하고, 종속변수로는 청소년의 학업열의를 선정하여 이들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또래관계를 조절변수로 선정하여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학업열의 변수들 간의 관계 속에서 조절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검증 분석 자료는 2018년도에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8차 연도의 중1 패널자료를 활용하였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시행한 2018년 KCYPSS로 표집된 중학교 1학년 2,590명(남자: 1,405명, 여자: 1,185명)의 자료를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를 분석 검증하기 위한 방법은 통계프로그램 SPSS 2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변수의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분석, 기술 통계량 분석, 변수 특성별 차이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분석 검증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변수의 기술 통계 검증 결과 주요 변수들의 수준을 알아보면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 수준은 평균 3.3585, 표준편차 0.53750이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평균 1.7066, 표준편차 0.57156으로 나타나 긍정적 양육태도가 부정적 양육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학업열의의 평균은 2.4672, 표준편차 0.57016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2.7764, 표준편차 0.60390으로 나타났으며, 조절변수인 또래관계의 평균은 3.1125, 표준편차 0.53435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긍정적양육태도는 부정적양육태도($r=-0.568$)와는 부적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열의($r=0.338$)와 삶의 만족도($r=0.452$), 또래관계($r=0.332$)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삶의 만족도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부정적양육태도에서는 학업열의($r=-0.186$), 삶의 만족도($r=-0.314$), 또래관계($r=-0.187$)와의 상관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는 또래관계($r=0.336$)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 또래관계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으며 남학생(1.7396)이 여학생(1.6675)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업열의도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으며 남학생(2.5114)이 여학생(2.4146) 보다 높게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도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으며 남학생(2.8501)이 여학생(2.6891)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또래관계는 여학생(3.1750)이 남학생(3.0598) 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3.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연구 자료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태도,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학업열의, 매개변수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조절변수인 또래관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긍정

적 양육태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양육태도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²값이 11.5%로 검증되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를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로는 삶의 만족도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 모두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β 값이 0.194, $p=0.000(p<0.001)$ 으로 분석되었다.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도 β 값이 -0.186, $p=0.000(p<0.001)$ 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의 영향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개인적인 요인인 삶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환경적인 요인인 또래관계를 조절변수로 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또래관계가 학업열의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업열의를 높이기 위한 이론적·실천적·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이론적 시사점

연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의 학업열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이

론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또래관계 등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검증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각 변인들 간의 미치는 영향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학업열의가 주로 특정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변인으로 연구가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열의를 예측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과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연구범위가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 개인적 요인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 연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도였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로 분류하여 이들 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와 삶의 만족도가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두 변인과 학업열의 간에 매개효과 있는지를 밝히므로써 연구범위를 확장하고 학업열의를 높일 수 있는 개인적 심리 요인을 발견하여 그 과정에 대해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조절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또래관계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밝히므로써 연구범위를 확장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삶의 만족도, 또래관계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과정에 관한 이해와 학업열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실천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학업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기의 발달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심리적·인지

적·사회적 발달에 큰 영향을 주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해주고 자율적지지를 통해 믿어주며 자녀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게 한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서로 친밀하고 자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부모가 애정을 가지고 지지를 할 때 자녀는 학업에 더욱 열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은 학업 수행에 있어서 높은 학업열의를 발휘한다. 즉, 청소년의 학업열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 자신이 실제 어떤 양육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관계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이나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긴다.

둘째,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는 과도기적 과정 속에서 주관적 행복감을 갖게되면 청소년기의 발달과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학업 수행에 있어서도 학업열의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삶의 만족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기에는 또래관계를 형성하면서 점점 부모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수평적인 관계로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의논하고 서로 응원해주며 지지해 주는 관계로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청소년 시기의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청소년에게 학업열의를 높이고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의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여긴다.

3.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사이의 영향 관계에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와 또래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여 청소년의 학업열의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로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의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자녀가 하고자하는 일에 자율적지지를 하였을 때 청소년기의 자녀에게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학업에 집중과 몰두 할 수 있는 열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검증 결과로 본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 서비스원과 연계하여 학부모 대상으로 청소년기 자녀를 이해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실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열의가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래관계의 경우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조절효과가 없었으나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에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상호관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를 높이는 데에 중요함을 시사한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학교생활과 또래관계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학교 내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또래집단 간의 긍정적인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여긴다.

제3절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학업열의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와 또래관계의 조절효과에 관하여 연구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방향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연구대상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정시킴으로 전체 중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학년별 분포가 다른 연구 모형이나 청소년기 전반에 걸친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두 변인의 세분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연구 변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두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긴다.

셋째, 청소년의 학업열의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 환경적 변인으로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 개인적 변인으로 삶의 만족도를 제한적으로 선정하여 연구 분석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학업열의를 높일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변인들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향후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탐색 분석하므로 청소년의 학업열의 수준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구본용 · 김택호 · 김인규(1999). “청소년의 또래 관계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 보고서 36)”. 한국청소년상담원.
- 권은경(2020). “중학생의 학업열의, 학업소진 관련 변인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11), 123-127.
- 권인수 · 최영근(2011). “직무열의의 선행요인과 심리적 조건의 매개 효과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8(4), 113-133.
- 김경민(2010). “부모의 양육 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수(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현황과 지도방안. 교육논총: 1-15.
- 김남정 · 임영식.(2012). “ 청소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청소년 활동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219-240.
- 김명자(2017).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성취도, 학교생활적응,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선(202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관계: 그릿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성, 신태수, 허유성(2012). 중고등학교시기 교사-학생관계, 교우관계의 종단적 변화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6(2), 429-459.
- 김선정(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양육태도와 교사에착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그릿(Grit)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현 · 김아영(201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개발과 타당화-자기결정성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6(3), 717-738.
- 김순규(2004). “가족환경 요인이 청소년의 학업중퇴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학연구, 11(3), 43-63.
- 김승진(2013).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의 인성과 학업열의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이가영. (2006). “청소년 발달지표조사 1: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유식·이슬잎·최재필 (2016). 중2학생의 신체매력,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교과교육학연구, 20(1), 21-34.
- 김은아·배민영(2016). 부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또래관계의 중다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Vol.23 No.9.
- 김재은(2007).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와 또래동조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
- 김태평·이은주(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 김하람(202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또래관계 및 학업열의의 구조적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상인(198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양식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석진(2015). “부모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중학생을 중심으로”, 국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지영·정혜원(2021). “중학생의 친구 및 교사관계와 학업열의 간의 구조적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3), 1279-1298.
- 도재석(2017). “지각된 교사-학생의 관계 및 동료 간의 관계성지지와 중·고등학생의 성취목표성향, 심리적 욕구과절 및 학업열의와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도종수(201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복지연구, 13(4), 21-45.
- 문혜성(2016).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메타인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경주·오경자(1995).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 - 모.자 상호행동 관찰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4(1), 41-55.
- 박미애·김세경·천성문(2013).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재활심리연구, 20(3), 627-652.
- 박병기·박선미(2012).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6(2), 563-585.
- 박선희(2009). 부모갈등과 자녀의 교우관계: 갈등해결전략, 또래관계기술, 상황 오 해석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김의철(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 자녀관계, 친구 관계, 교사학생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4), 87-15.
- 박예은·정혜원(2021).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업열의의 구조적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9(5), 275-304.
- 박현옥(2017). 특목고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주도 학습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영재교육저널, 4(2), 125-147.
- 배숙진(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윤희(2015). “대학 이러닝 학습자의 과제가치, 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의 구조적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1), 105-122.
- 신미·전성희·유미숙 (2012).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3(1), 81-92.
- 염연옥(2018). “고등학생의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와 부모의 성취압력, 학업과다, 정신건강 관계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염혜선·이은주(2020). “중학생의 학업열의, 또래관계 질, 공격성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구조제공의 시너지 효과”. 한국교육심리학회.교육심리연구 34(3), pp 521-541.
- 오승환(2001).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순화(2007).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학생들의 기대와 지각”. 「초등교육연구」 20(1), 35-375.
- 유안진·한유진·김진경(2002).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3), 79-90.
- 윤아랑·정남운(2011). “상담자 소진: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231-256.
- 이기경·이실관·남인수(2017). “체육수업에서 직가된 학습환경이 중학생의 자기조절전략 및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2), 709-728.
- 이미라·전향신(2020), “부모의 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그릿,학업열의, 학업성취도와와의 구조적 관계 :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 분석”,학습자중심교과연구, 20(14), 779-805.
- 이상섭·조홍식(2015). “체육수업에서 교사-학생관계 및 교우관계가 학생들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4(5), 1079-1090.
- 이순성(2010).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 종단적 추이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연(2009).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양육방식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아(2014)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효과”,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자영·이상민(2012). 한국형 학업열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24(1), 131-147.
- 이춘재·오가실·정옥분(1991). “사춘기 신체성숙시기와 심리사회적 발달

- 달”, 한국심리학회 4(1), 89-102.
- 이현아(2011). “완벽주의가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동기와 목표과 정의 매개효과 및 대처유연성의 조절효과 검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종필(2016).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환경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호진 · 이소라(2020). “그릿 (Grit) 을 매개로 학업열의를 예측하는 부모 · 교사 · 교우 변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 한국초등교육, 31(1), 109-127.
- 정교영 · 신희천(2011). “자기결정이론을 근거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03-634.
- 정 교 영 · 신 희 천 (2011). “한국 판 부모 양육 행동 척 도 (Korean-Parents as Social Contest Questionnaire; K-PSCQ)의 타당화”. 상담학 연구, 12(4), 1287-1305.
- 정문경(2014). “청소년기 정서 조절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유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49-72.
- 정정화(2008).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또래관계의 질 및 학교적응도와 의 관계.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택용(2016).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 적응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수현 · 이민영 · 이장희 · 이상민(2018). “고등학생의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관한 연구: 직무요구 - 자원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4(3), 1-26.
- 조주연 · 김명소(2013). “초등학생의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관한 남녀차이 연구”, (4), 477-497.
- 조한익 · 이현아(2010).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취목표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12), 131-153.

- 조현철(2013). “중학생의 학습무동기에 따른 학습태도,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적에 대한 효과”, 교육종합연구, 11(3), 53-74.
- 조혜지(2019) “부모-자녀 애착관계가 중학생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 또래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9, 23-256.
- 최순영(2005). 인간의 사회·성격 발달심리. 서울: 학지사.
- 최영미(2020). “부모의 긍·부정적 양육태도, 교사애착, 학업열의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연구, 20(23), 915-936.
- 최유선(2014).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원(202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 자아존중감, 협동심 및 학업열의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2016). “부모양육태도 불일치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21). 청소년 통계.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VI - 총괄보고서”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www.nypi.re.kr/contents/siteMain.do>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년도 1차 중 1 패널 데이터.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묘연(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홍국진·이은주(2017). “부모의 자율성지지; 부모의 통제적 양육; 자기결정성 동기; 학업성취; 또래애착”. 한국교육심리학회,31(2), 305-326.
- 홍승표(2019). “초등학생의 또래관계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혜정(2019). “청소년의 학업성취 만족도, 삶의만족도,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관계 및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재원 · 김계현(2009). “상담일반: 대학생의 행복추구경향과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 한국상담학회, 10(1), 57-71.

2. 국외문헌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well-beings in adolesc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scoe, S. M., Davies, P. T., Sturge-Apple, M. L., & Cummings, E. M.(2009).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family relationships, peer information processing, and schoo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6), 1740 - 1751.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 1-103.
- Becker, W. C, (1964). Consequence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Hoffman, M. L. & Hoffman, L. W. (E 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9-208.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s.
- Berndt, T. J. (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6), 1447-1460.
- Berndt, T. J., Hawkins, J. A., & Jiao, Z. (1999). Influences of friends and friendships on adjustment to junior high school. *Merrill-Palmer Quarterly*, 45(1), 13-41.
- Chen, J. J. I. (2005). Relation of academic suport from parents, teachers, and pers to Hong Kong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ng role of academic engagement.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31(2), 7-127.
- Day, H. Y., & Jankey, S. G. (1996). Lesons from the literature: Toward a holistic model of quality of life. In R. Ren wick, I. Brown,& M. Nagler (Eds.), *Quality of life in health promotion and rehabilitation: Conceptual aproaches, issues, and aplications*, 39-50. Thousand

-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E. M. Suh, R. E. Lucas and H. L. Smith(1999). “Subjective Well-Being: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76-302.
- Farkas, M. S., & Grolnick, W. S. (2010). Examining the components and concomitants of parental structure in the academic domain. *Motivation and Emotion*, 34(3), 266-279.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 Wesley.
- Fujita, F.,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 Gonzalez-Roma, V., Schaufeli, W. B., Bakker, A. B., & Lloret, S. (2006). Burnout and engagement: Independent factors or opposite po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1), 165-174.
- Handelsman, M., M., Briggs W., L., Sullivan N. & Towlera A., (2005). A Measure of College Student Course Engagement. *The J 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8(3), 184-192
- Hartup, W. W. (1992). Peers relations in early and middle childhood. *Handbook of social development*. London: Methuum, 170-192.
- Hartup, W.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1), 1-13.
- Hauser, S.T.et.al (1973). Differentiation of adolescent self-images. *Arch*.

- Gen.Psychiatry, 29.
- Huebner, E. S. (2004).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 3-33.
- Kahn, W. A. (1990). Psychological conditions of personal engagement and disengagement at work.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3(4), 692-724.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Mussen & E. M. Hetheringt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Y: Wiley.
- Neils, S. M., & Rae, G. (2009). Brief report: Peer attach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32(2), 443-447.
- Neugarten, B. L.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143.
- Perris, C., Jacobsson, L., Lindström, H., von Knorring, L., & Perris, H. (1980). Development of a new inventory for assessing memories of parental rearing behaviour.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61, 265-274.
- Ryan, R. M., Deci, E. L., & Grolnick, W. S. (1995). Autonomy, relatedness, and the self : Their relation to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Theory and methods*. NY: Wiley
- Schallock, R. (1996). *Quality of Life*, New York :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 Schaefer, E. S. (1959). A Circumf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59 (2), 226-235.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2), 413-424.
- Schaufeli, W. B., Martinez, I., Marques-Pinto, A., Salanova, M., &

- Bakker, A. B. (2002a).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cross 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464-481.
- Schaufeli, W. B., Salanova, M., Gonzalez-Roma, V., & Bakker, A. B. (2002b). The measurement of engagement and burnout: A two 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1), 71-92.
- Schaufeli, W. B., & Bakker, A. B. (2004).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burnout and engagement: A multi-sample stud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5*(3), 293-315.
- Shaffer, D.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4th ed.). Belmont, CA: Wadworth / Thompson Learning.
- Skinner, E. A., Wellborn, J. G., & Connell, J. P. (1990). What it takes to do well in school and whether I've got it: A 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and children's engagement and achievement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22-32.
- Skinner, E., Johnson, S., &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
- Vallerand, R. J., Fortier, M. S., & Guay, F. (1997). Self-determination and persistence in a real-life setting: toward a motivational model of high school dropou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5), 1161-1176.
- Vasquez A. C., Patall E. A., Fong C. J., Corrigan A. S., & Pine L. (2015). Parent autonomy support, academic achievement,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A meta-analysis of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부록) 설문지

※ KCYPS 2018의 데이터 중 본 연구변인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을 제시함.

I. 중1 패널 조사 2018년 제1차 - 청소년 조사표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2) 여자

2. 학생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1)전혀 건강하지 않다 2)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3)건강한 편이다 4)매우 건강하다

3. 학업성취 만족도

지난 학기(2018년도1학기) 학교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잘 모르겠음
①	②	③	④	⑤	⑥

4.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

학생이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

학생이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①	②	③	④

6. 학업열의

학생의 학업열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공부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폭 빠진다	①	②	③	④
13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①	②	③	④

7. 삶의 만족도

학생의 현재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①	②	③	④
2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①	②	③	④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8. 또래관계

또래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2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①	②	③	④
3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4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6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7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①	②	③	④

I. 중1 패널 조사 2018년 제1차 - 보호자 조사표

1.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보호자)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번호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 졸	중학 졸	고등 졸	전문 대졸	4년제 졸	대학 원졸	잘모 르겠 음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보호자 (부모가 안 계신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부모님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하	하	보통	상	최상
①	②	③	④	⑤